

## 平地型 寺刹의 造景植物 配置에 관한 調査研究

沈載成·裴貞寬

培材大學校 園藝造景學部

### An Investigation Study on The Planting Arrangement of Ornamental Plants in Four Level Land Buddhist Temples.

Shim, Jai-Sung · Bae, Jeong-Kwan

Division of Horticulture and Landscape, Pai Chai University

#### 요 약

평지형 사찰의 경관현황을 개관하고 경내 수목의 식재현황, 유형 및 각 사찰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수목간의 연관성을 구명하기 위해 월정사, 신흥사, 신흥사 및 미타사를 대상으로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답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개 사찰의 대웅전 앞에는 수목이 식재되지 않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웅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월정사 적광전에는 산철쭉 외 5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 신흥사 및 신흥사의 극락보전과 월정사의 무량수전에는 공통적으로 주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월정사와 미타사에서는 금송도 식재되어 있었다. 특히 월정사의 조사당, 무량수전 및 삼성각에는 한결같이 금송이 식재되어 있었다. 월정사의 적광전과 삼성각, 및 신흥사의 극락보전에는 수수꽃다리가 식재되어 있음이 관찰되었고, 신흥사의 명부전과 신흥사의 극락보전에서는 불두화가 관찰되었다. 한편 신흥사와 신흥사에 식재된 향나무는 양 사찰의 대표수종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수목과 각 사찰건물간의 연관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고, 평지형 사찰에서 수목을 식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lanting arrangement of ornamental trees and shrubs that leads to an appropriate type of templescape. Temples sampled for this study were Woljongs,

Sinheunsa, Sinreugsa and Mitasa which fall all under the category of the level land.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Open spaces of Daewoongjeon in all temples, a main Sanctuary among temple buildings, where Buddha is enshrined in, we could not find any kinds of trees/shrubs to be planted. But there were *Acer mono*, *Acer planmatum*, *Crataegus pinnatifida*, *Raododendron poukhanense*, *Taxus cuspidata* and *Buxus mincrophylla* to be planted, before Jeokkwangjeon, in which Buddha is exceptionally enshrined.

In Geugragjeon of both temples of Sinheunsa and Sinreugsa, an Elysium building and Muryangsujeon of Woljeongsa temple, an immeasurable bliss building, in which an Amitabha is enshrined. was *Taxus cuspidata* planted numerously found. Particularly, Josadang, Muryangsujeon and Samsungkag of Woljeongsa temple commonly had *Sciadopitys verticillata*, which is known as one of Japanese-favorite trees. *Synga oblata* Lindaley was also observed at Jeokkwangjeon of Woljeongsa temple and Keugnakjeon of Sinheungsa temple, and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a symbolic flower tree imaging Buddha's head, was planted in Myungboojeon of Sinheungsa temple and Keugnakjeon of Sinreugsa temple. *Juniperus chinensis* which could be observed in both temples Sinheunsa and Sinreugsa was well arranged enough to be easily captured by human's eyes.

In terms of templescape that might be considered in templescape, the correlation between trees/shrubs and temple buildings was thoroughly discussed. And, with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precise studies, we presented here in this paper newly designed model of templescape in level land buddhist temples which is possibly applied for planting and arrangement of trees or/and shrubs.

Key Words : 평지형 사찰, 수목의 배치유형, Planting arrangement, Ornamental plants,  
Level land buddhist temple.

## I. 서 론

우리나라 사찰조경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통양식에 영향을 받아 문화와 정서를 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李成圭, 1996), 이는 바로 우리나라의 사찰경관이 궁극적으로 한국적 풍토에 조화된 건축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찰의 외적 환경은 일

적부터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통해 자연과의 일치성으로 근간으로 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경관 역시 자연조건에 가능한 조화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沈載成 등, 2002).

더욱이 아미타불이 연꽃대좌 위에 앉아 구품인 수인(手印)을 짓고 설법하고 계심으로 바로 그 곳에 현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철마다 꽃송이가 휘날리게 함으로써 언제나 하늘에서 베풀어 주는 꽃비가 뿌려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려하는 시도들은 식물과 불교와의 인연을 짐작케 한다(정각, 1994).

그동안 사찰에 있어 식물 식재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선암사의 식재경관에 관해서 강승문(1984), 조남훈(1996) 및 河在浩 등(1997)의 연구가 있으며, 申永澈(1980) 및 李成圭(1996)는 사찰에 식재된 수목과 식재특성을 조사하여 건축물과의 조화됨을 살펴보고 공간특성에 맞는 식재양식과 수종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한국 사찰의 경관현황을 개관하고 조경식물을 통한 가람의 종교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불자들의 경건한 수도는 물론 경관적 가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내용으로서 위치상 평지의 지형에 건립된 사찰을 선택하여 이들 사찰 경내 수목의 식재현황과 식재유형을 조사하고 각 사찰이 지니고있는 특성과 연관시켜 이를 분석 정립함으로써 사찰조경의 한 규범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대상 사찰 및 조사방법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사찰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월정사,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신흥사,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신흥사 및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미타사 등, 4개의 사찰을 대상으로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조사 실시하였다. 이 사찰들은 넓은 평지 위에 건물을 분산 배치하는 형태를 취한 사찰들로서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산지형 사찰과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평지형 사찰은 공간 이동이 수평으로만 행해지거나 설혹 있다해도 수직이동이 약해서 흥미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방법은 전국의 유명사찰에 있어 자연적인 면이나 인공적인 면 등, 사찰내부를 대상으로 수목식재 유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건물의 유형을 정리함으로써 사찰간의 통일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주불에 따른 분류와 사찰 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분류하였다(심재성 등,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현재 및 미래에 해당하는 각 사찰건물의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그 건물의 성격과 함께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첫째 사찰의 창건과 관련된 특정수목을 조사하여 수목의 종류, 의미 및 식재 위치의 의미를 파악하였고, 둘째 사찰 내 건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용어상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을 주불에 따라 분류 조사하였으며, 셋째 이상의 이론적 근거와 자료의 분석을 통해 현대사찰의 입지유형에 따른 수목의 식재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때 조사된 수목의 위치와 종류, 크기 등을 기초로 하여 수목의 배치유형을 설계에 적용하였다. 대상지 조사는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III. 結 果

조사대상 4개의 평지형 가람 각각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대상으로 식재유형과 주불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가람의 특성별 수목과 불교적 의미의 수목 식재를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월정사

오대산 동쪽 계곡 울창한 수림 속에 자리잡고 있는 월정사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에 있는 사찰로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이다. 신라 선덕여왕 14년에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월정사는 상원사를 비롯한 오대암자, 영감사 등 크고 작은 사찰과 암자를 말사로 거느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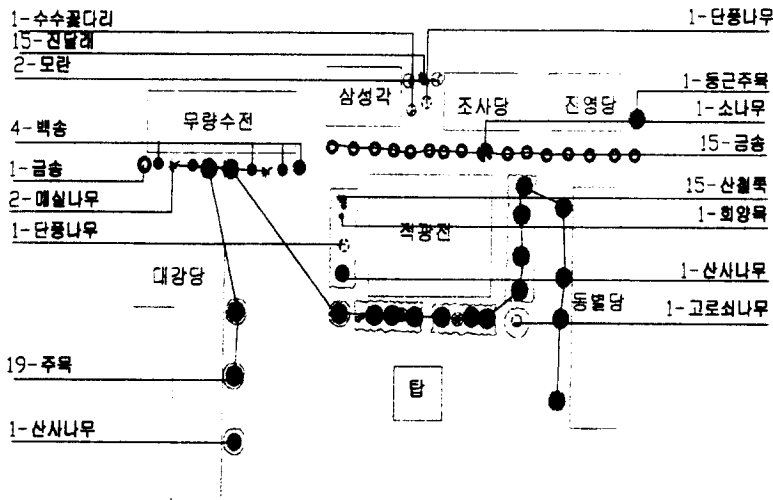
지금의 월정사는 6.25의 참화로 완전히 소실되었다가 다시 건립된 사찰이며 6.25전의 월정사 건물은 대체로 조선 전기에 속하는 건물로써 그 규모가 방대하였는데, 이는 세조의 후원으로 월정사의 경제적 기반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이 사찰은 과거의 규모를 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건된 전형적인 평지형 사찰로서 적광전이 본전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적광전이면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는 것이 통례이나 이곳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월정사에서 볼 수 있는 건물별 교·관목 식재현황과 식재 현황도는 각각 <표 1>과 <그림 1>과 같다.

<표 1> 월정사 교·관목 식재현황

학 명	수종명	수량	사찰내 건물명							
			적광전	무량수전	삼성각	조사당	진영당	동별당	대강당	기타
<i>Acer mono</i>	고로쇠나무	1	+							
<i>Sciadopitys verticillata</i>	금송	16		+	+	+	+			
<i>Acer plamatum</i>	단풍나무	2	+			+				
<i>Taxus cuspidata</i>	둥근주목	1					+			
<i>Prunus mume Siebold</i>	매실나무	2		+						
<i>Paeonia suffruticosa</i>	모란	2			+	+				
<i>Pinus bungeana</i>	백송	4		+						
<i>Crataegus pinnatifida</i>	산사나무	2	+							
<i>Raododendron poukhanense</i>	산철쭉	15	+							
<i>Pinus densiflora</i>	소나무	1				+				
<i>Synga oblata Lindalely var</i>	수수꽃다리	1			+					
<i>Taxus cuspidata</i>	주목	19	+	+				+	+	
<i>Raododendron mucronulatum</i>	진달래	15			+					
<i>Buxus microphylla</i>	회양목	1	+							



<그림 1> 월정사 식재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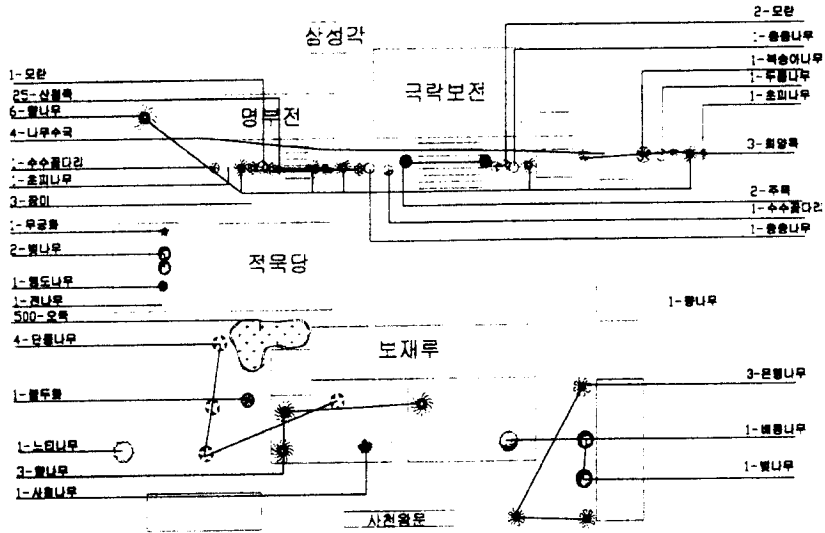
수목배치의 특성을 보면 진입부에 대형 전나무 숲으로 이루어졌으며, 팔각구층석탑의 위용과 함께 전면부에는 주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측면부에는 단풍나무와 아가위나무라고도 부르는 산사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비교적 조화를 이룬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조사당 앞에는 외래수종이면서 대형교목인 금송이 열식되어 있어서 사찰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방 극락정토의 교주 아미타불을 모신 곳인 무량수전 전면부에는 다른 사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백송과 홍색의 꽃 향기가 매우 좋은 매화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인상적이다. 전면부에 매화목의 식재는 무량수전 건물의 조형적 미(美)를 더해주고 있으며 1m 정도의 관목상인 백송의 식재는 건물의 미적 감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다.

<표 2> 신홍사 교·관목 식재현황

학 명	수종명	수량	사찰내 건물명					
			극락보전	명부전	삼성각	적묵당	보재루	기타
<i>Hydrangea paniculata</i> Sieb	나무수국	4	+	+				
<i>Zelkova serrata</i> Makino	느티나무	1						+
<i>Acer palmatum</i> Thunb	단풍나무	4				+	+	
<i>Aralia elata</i> Seeme	두릅나무	1						+
<i>Paeonia suffruticosa</i> Andrew	모란	3	+					
<i>Hibiscus syriacus</i> L.	무궁화	1						+
<i>Lagerstoemia indica</i> L.	배롱나무	3					+	
<i>Prunus sargentii</i> Rehder	벚나무	3						+
<i>Prunus persica</i> Stokes	복숭아나무	1						+
<i>Viburnum opulus</i> var. <i>calvescens</i> Hara	불두화	1					+	
<i>Euonymus japonicus</i> Thunberg	사철나무	1					+	
<i>Rhododendron poukhanense</i> Leveille	산철쭉	25		+				
<i>Syringa oblata</i> Lindley var. <i>dilatata</i>	수수꽃다리	2	+	+				
<i>Prunus tomentosa</i> Thunberg	앵도나무	1						+
<i>Phyllostachys nigra</i> Munro	오죽	100				+	+	
<i>Ginkgo biloba</i>	은행나무	3						+
<i>Rosa hybrida</i>	장미	3		+				
<i>Abis holophylla</i>	전나무	1						+
<i>Taxus cuspidata</i>	주목	2	+					
<i>Zanthoxylum schinilium</i>	초피나무	2		+				
<i>Cornus controversa</i>	층층나무	2	+					
<i>Juniperus chinensis</i>	향나무	9		+			+	
<i>Buxus microphylla</i>	회양목	3						+



<그림 2> 신홍사 식재 현황도

적광전에서 볼 수 있었던 교·관목은 산철쭉, 회양목, 단풍나무, 산사나무, 주목, 명자나무 및 수수꽃다리 등이었다. 한편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는 극락전 및 무량수전에서는 금송, 백송, 주목 및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우리고유의 토속신들을 불교적으로 수용한 건물로서는 전각,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등이 있는데, 이 월정사에서는 삼성각이 있었다. 여기에 식재된 교·관목들로 금송, 진달래, 모란, 및 수수꽃다리 등이 관찰되었다.

## 2. 신홍사

신홍사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60번지 설악산에 위치한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이다. 지형적으로 동해를 굽어보며 우뚝 솟은 기암준봉 들과 수백 수천의 폭포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설악의 품속에서 신홍사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 오고 있는 고찰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의 본사라는 이름에 걸맞을 만큼 현재의 사찰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새로운 불사건축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신홍사는 앞면 3칸, 옆면 3칸의 팔작지붕 다포계 건물이며, 건물마다 공간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다. 유형상으로는 평지형 사찰이다. 건물별 교·관목 식재 현황 및 현황도는 각각 <표 2> 및 <그림 2>와 같다.

교·관목은 그다지 많이 식재되어 있지 않으나, 신흥사의 중심법당인 극락보전 앞의 계단 좌·우측으로 정돈된 주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1737년(영조 13)에 처음 지어 지장보살상을 봉안했던 명부전 전면에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초피나무가 산식되어 있었다. 공간의 주변에는 장미, 모란, 산철쭉, 층층나무, 향나무들이 단식되어 있었다.

승려들이 좌선수행하는 공간인 적묵당 주변에는 오죽과 불두화가 열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화미를 염두에 둔 듯하다. 경기 여주 신흥사를 제외한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향나무가 단식되어 있어서 건물의 안정감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이 향나무는 건물 주변으로 산식되어 있어서 마치 사찰 전체가 향나무 동산인 것과 같은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극락보전 앞에는 모란, 주목, 층층나무, 향나무, 수수꽃다리 및 산철쭉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명부전 앞에는 나무수국, 수수꽃다리, 초피나무, 향나무, 장미, 모란 및 산철쭉 등이 식재되어 있어서 공간이 가득 채워져 있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토속신들을 수용한 건물인 삼성각 앞에는 아무런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았다.

### 3. 신흥사

신흥사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봉미산에 있는 대한 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이다. 봉미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신흥사는 우람한 우두산과 해묵산 줄기가 뻗어 내리다가 평탄하게 산봉우리가 솟아 내린 아득한 여강의 물굽이 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듯 신흥사는 산기슭에 있으면서도 은모래와 유유했던 물줄기가 바라다 보이는 강촌에 포근히 앉아 그 풍경이 아름다우며 예로부터 신흥사의 절경을 말하는 이가 많았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 초 문인인 김수온(金守溫)은 "여주는 국토의 상류에 위치하여 산이 맑고 물이 아름다워 낙토(樂土)라 불리었는데, 신흥사가 이 형승(形勝)의 복판에 있다"라고 칭송하여 그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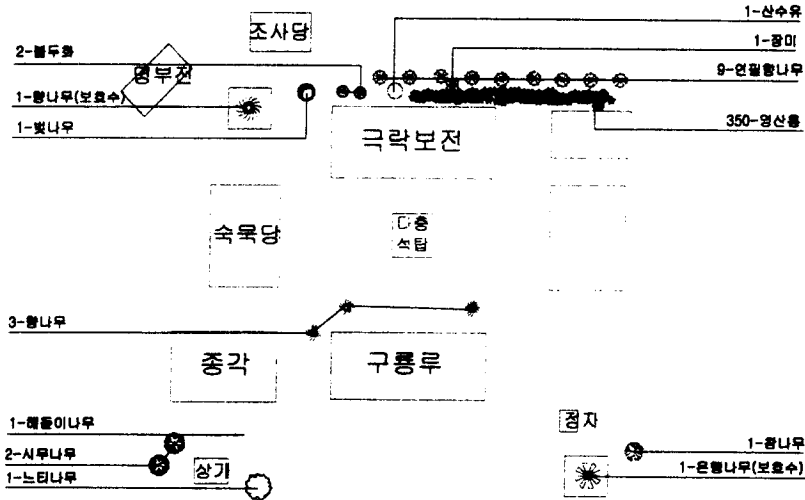
원효가 창건한 이래 조선시대에 와서는 200여 칸이나 되었던 대찰인 신흥사는 평지형 사찰이다. 사찰의 배치를 보면 앞쪽으로 큰 강을 내려다보고 있어서 특이한 지형이라는 지리적 실리를 품고 있다. 극락보전이 본전인데 이 극락보전은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다.

신흥사 건물별 수목 식재현황 및 식재 현황도는 각각 <표 3>과 <그림 3>과 같다.



<표 3> 신륵사 교·관목 식재현황

학 명	수종명	수량	사찰내 건물명						
			극락보전	명부전	조사당	적묵당	종각	구룡루	기타
<i>Zelkova serrata</i>	느티나무	1							+
<i>Prunus sargentii</i>	벗나무	1			+				
<i>Viburnum opulus var. calvoscens</i>	불두화	2	+						
<i>Cornus officinalis</i>	산수유	1	+						
<i>Hemiptelea davidii</i>	시무나무	2							+
<i>Juniperus virginiana</i>	연필향나무	9	+						
<i>R. obtusum Planchon</i>	영산홍	350	+						
<i>Ginkgo biloba Linnaeus</i>	은행나무	1							+
<i>Rosa hybrida Hortorum</i>	장미	1	+						
<i>Quercus Linne</i>	참나무	1							+
<i>Juniperus chinensis Linnaeus</i>	향나무	4		+				+	+



<그림 3> 신륵사 식재 현황도

극락보전의 앞쪽에는 수령 500년의 대형 향나무가 단식되어 있어 위요함을 느끼게 했다. 또한 이 향나무 이외의 수목이 거의 식재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향나무 주목의 사찰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었다. 다만 단을 이루는 뒤쪽으로 벚꽃나무, 불두화, 산수유, 영산홍, 장미 등이 군식되어 있어서 사찰의 색채를 비교적 풍요롭게 장식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찰 내에 극락보전 주변만 향나무가 열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고려시대 이후 시인 묵객들이 묵어가며 자연을 노래했던 곳인 적목당, 29구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명부전, 여러 건물 중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에 세워진 건물인 조사당 등에는 수목이 거의 없는 단아하고 정결한 경내가 나름대로 사찰의 위용을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표 4> 미타사 교·관목 식재현황

학 명	수종명	수량	사찰내 건물명		
			극락전	삼성각	기타
<i>Juniperus chinensis</i>	가이즈까향나무	3	+		
<i>Forsythia koreana</i>	개나리	100			+
<i>Abies koreana</i>	구상나무	7			+
<i>Sciadopitys verticillata</i>	금송	6	+		
<i>Nandina domestica</i>	남천	1			+
<i>Zelkova serrata</i>	느티나무	2			+
<i>Campsis grandiflora</i>	능소화덩쿨	1	+		
<i>Eucommia ulmoides</i>	두충나무	1			+
<i>Koelreuteria paniculata</i>	모감주	1			+
<i>Chaenomeles sinensis</i>	모과나무	1			+
<i>Paeonia suffruticosa</i>	모란	1			+
<i>Lagerstroemia indica</i>	배롱나무	1			+
<i>Magnolia denudata</i>	백목련	2			+
<i>Pinus bungeana</i>	백송	1	+		
<i>Viburnum opulus var. calvoscens</i>	불두화	3			+
<i>Rhododendron poukhanense</i>	산철쭉	150			+
<i>Punica granatum</i>	석류	1			+
<i>Pinus parviflora</i>	섬잣나무	1			+
<i>Syringa oblata Lindley var. dilatata</i>	수수꽃다리	1			+
<i>Rhododendron schlippenbachii</i>	영산홍	150			+
<i>Acanthopanax sessiliflorus Seemen</i>	오가피	1			+
<i>Juniperus chinensis</i>	옥향	29			+
<i>Ginkgo biloba</i>	은행나무	1			+
<i>Rosa hybrida</i>	장미	1			+
<i>Taxus cuspidata</i>	주목	9			+
<i>Thuja orientalis</i>	측백	6			+
<i>Juniperus chinensis</i>	향나무	1			+
<i>Buxus microphylla</i>	회양목	100			+

&lt;그림 4&gt; 미타사 식재 현황도

#### 4. 미타사

미타사는 충청북도 음성군 가섭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이다. 소백산 줄기를 이어온 유일한 가섭산 중턱에 자리잡은 미타사는 1300여 년 전 신라 진덕여왕 8년(630년) 원효성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창건이후 열 대 덕승려들에 의해 몇 차례 중건되었고, 조선 인조 14년 호란 당시 각성대사가 의병 3천명(항마군)을 모집하여 호병을 물리친 공로로 나라에서 크게 중수하였으나, 조선 영조 18년에 화재로 폐허가 되었다. 해방 이후 1964년 이 폐사에 명안승려가 운수행각 중 대원력을 세워 극락전과 선원, 요사채, 대광명 사리탑 등 8칸의 당우를 건립하여 지금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입지 유형상 계곡을 막고 단을 쌓은 산지형이나 중심건물은 평지에 위치해 있다.

미타사의 건물별 수목 식재현황과 식재 현황도는 각각 <표 4>와 <그림 4>와 같다. 근간에 건립된 사찰인 관계로 성목을 거의 볼 수 없었으며, 극락전 단하에 대형교목 이면서 외래수종인 금송과 가이즈까향나무 식재되어 있어 아무런 의미없이 단순한 조경목적으로 도입한 것 같은 인상이었다. 관목의 백송이 단을 따라 1열식으로 식재되어 있는데 전면의 임의적인 공간을 채워주고 있다.

불사를 일으킨 역사가 미천하여 그런 것으로 보이거나 이 사찰은 아직 이렇다할 특징적인 조경유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금후 본 사찰이 지니고있는 역사성과 불교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조형기법을 도입하여 사찰의 의미를 부각시켜야 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V. 綜 合 考 察

### 1. 건물에 따른 식재유형

사찰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건물과 수목은 끝없이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 역시 변화하리라고 본다. 더욱이 자연과 친숙한 감각을 지니고 있던 옛 선인들의 전통은 오늘날 한국 조경의 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전형의 하나인 사찰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예외없이 발견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 대상사찰 본전에서는 수목식재의 빈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록사(극락보전)의 경우, 본전 경내의 전면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월정사의 적광전, 신흥사의 극락보전, 미타사의 극락전 등에서는 본전의 단하부분에서 일부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교목은 피하고 관목류 정도로 식재된 것으로 보아 이는 전면부에 있는 본전불의 시야를 가릴 것을 염려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미타사에서 단하 식재는 수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극락전이나 무량수전에서는 극락전이나 무량수전이 본전이 아닌 곳에서는 수종의 다양성이나 수목의 출현 빈도가 높고 비교적 화려한 수종의 식재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는 화려함이 더해진 수목으로 식재된 것으로 해석되어 본전이 아닌 곳에서는 무난한 식재형식으로 볼 수 있다.

비로전에서는 수종이 다양하고 팽나무, 벚나무 등의 조류들이 즐겨 먹는 조이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어 이곳 역시 건물과 수종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으나 비교적 화려하게 식재되어 있었다. 한편 원통전, 관음전 및 대비전등은 현세에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살로써 약병을 들고 있거나 꽃을 들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려한 식재가 이루어져 있음은 다소 사찰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명부전은 모든 지옥중생의 구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이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보살로써 초피나무, 향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단아하고 정결한 느낌을 주는 수종이 식재되어 있다. 승려들이 거처하는 곳이라면 향기가 강하거나 화려한 수종보다는 청아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실류나 향나무 등의 식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연구에서 사찰건물과 수목 식재와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특이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산지형 사찰에서는 진입공간과 단하부분에 대형교목의 식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심재성 등, 2004), 본 조사대상인 평지형 사찰에서는 건물의 전면부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재가 이루어졌고, 교목은 건물의 뒤쪽에 주로 식재되어 있었던 것을 평지형 사찰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 2. 불교와의 관련성이 있는 수종

불교라는 종교적 의미와 관련성을 갖고있는 수종으로 부처꽃과의 배롱나무가 있으며, 이 외에도 부처의 두상과 비슷해서 칭명된 불두화, 염주를 생산한다고 해서 염주 나무라고도 부르는 찰피나무, 꽃잎이 희고 현세의 향기가 아닌 극락의 향기라는 치자 나무, 더러운 진흙 속에서 청아한 꽃을 피우고 모든 행사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과 같은 것들은 모두 불교를 상징하는 식물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 4개 사찰 내에 배롱나무, 불두화, 찰피나무, 치자나무 및 연꽃의 식재 현황을 보면 각 사찰 내에 가장 많이 식재되었던 수목 및 화목은 배롱나무와 불두화였다. 배롱나무는 4개 사찰 중 월정사와 신륵사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2개 사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배롱나무가 부처꽃과에 속하는 명칭에서 보듯이 불교를 상징하는 화목이기에 적어도 대웅전 내지는 대웅전과 근접한 위치에 식재하는 것은 어쩌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조사된 4개 사찰 중에서 이 나무가 이러한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식재되어 있는 곳은 신흥사의 보재루 및 미타사에서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불두화는 신륵사의 극락보전, 그리고 신흥사의 보재루에서 관찰할 수 있고 미타사에서는 경외에 식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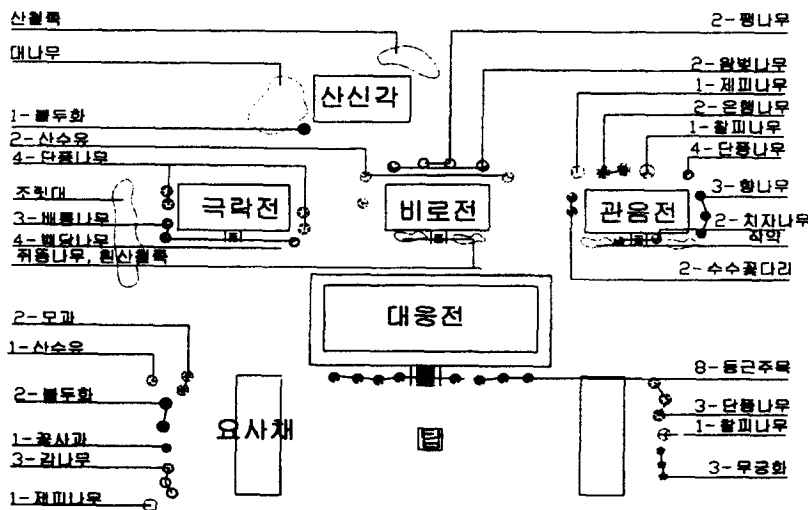
원산지는 우리나라이지만 현재 일본국화로 되어있어서 일본화목라고 인식되어있는 벚꽃이나 혹은 금송, 그리고 일본에서 개량되어 우리나라로 건너온 가이즈까 향나무

등이 사찰 내에서 발견되고 대신 찰피나무와 같은 불교를 상징하는 수목은 4개 사찰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 것으로 미루어 금후 사찰조경에 있어서 수목이나 초목을 식재 할 때에 고려사항에 넣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한다.

월정사와 같은 유서 깊은 사찰에 무량수전, 삼성각, 조사당 및 진영당에는 불교와 연관된 것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금송이 식재되어 있음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신흥사나 신흥사 조사당과 같은 곳에는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미타사는 배롱나무와 불두화가 본전에는 식재되어 있지 않고 외곽지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오히려 극락전에서는 금송과 가이즈까향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도 재고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된다.

### 3. 사찰에서의 수목의 식재모형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평지형 사찰에서 수목을 식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그림 5>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배식의 기본원칙으로 ① 조사에 나타난 우점종을 건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였고, ② 불교와 연관성이 있는 수목을 주축으로한 배치를 염두에 두었으며, ③ 지역적인 특성, 기후 환경과 친환경적인 식물을 선택하였고, ④ 식물의 특성상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을 선정하였고, 마지막으로 ⑤ 사찰의 입지와 기능과의 조화를 고려한 식재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5> 평지형 사찰의 식재모형

우선 대웅전을 살리기 위해 본전을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단하부분에 낮은 등근주목의 식재를 시도하였다. 또한 아미타부처님(미래)를 모시고 있는 극락전에는 현실보다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환상을 일으키고자 화려한 수종인 단풍나무, 불교적 의미가 있는 부처꽃과의 배롱나무, 빨간 열매와 하얀 꽃이 화려함을 주는 불두화의 모체인 백당나무를 도입하되, 극락전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에 간격을 두었으며 이와 함께 식재보다는 건물의 의미와 건물의 형태를 재현하는데 중심축을 두었다.

비로자나불(과거)을 모시고 있는 비로전에는 팽나무나 벗나무, 쥐똥나무 등과 같은 조류들이 즐겨 먹는 조이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었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이러한 종류의 수목을 선택, 식재하였다. 과거에 대해 엄숙히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면에 하얀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흰산철쭉을 식재하였다.

관음보살(현세)을 주불로 모시는 관음전은 현세에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살로서 약병을 들고 있거나 꽃을 들고 있는 데에서 보듯이 화려하고 약용에 쓰일 수 있는 은행나무와 꽃이 화려한 치자나무를 전면부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식재하였으며, 옆면에는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수수꽃다리 등을 식재하여 화려한 이미지와 건물의 의미를 부각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산신각에는 대나무, 불두화, 산철쭉 등을 식재하여 탕화에 나오는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식재하였으며, 요사채에는 승려들이 수행 중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산수유, 불두화 등을 식재하고 모과, 감나무 등 과실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였다.

이에 평지형 사찰은 지형적 특성상 교목들을 건물 뒤쪽으로 배치하고 관목들을 건물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재하도록 시도하였다.

## 參 考 文 獻

- 강승문, 1984. 한국 사찰건축 중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申永澈, 1980. 韓國 寺刹의 景觀과 植物相에 關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沈載成·裴貞寬·徐炳基·崔鐘明, 2002. 時代 및 宗教的 環境과 韓國의 造景 景觀形成  
 小考, 자연과학논문집, 제12권 1호, 배재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85-101

- 沈載成·裴貞寬·徐炳基, 2004, 山地型 寺刹에 있어 造景植物 配置형식에 관한 研究.  
자연과학논문집, 제13권 1호(인쇄중)
- 李成圭, 1996. 우리나라 主要寺刹의 造景樹種 및 植栽特性에 관한 研究, 清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正 覺, 1994. 『그곳 절을 찾아서, 伽藍』, 봉은사 출판부, 서울. p.38
- 조남훈, 1996. 南部地方 寺刹의 植栽 및 景觀變遷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河在浩, 洪光杓, 金南喆, 1997, 신암사의 造景樹木 植栽現況에 관한 研究, 寺刹造景研  
究, Vol.5, 45-57